

2024년 새해에도
새마음, 새 기운으로 하느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수도회가 한국진출 100주년을 한 해 앞둔, 99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00주년 준비위원회는 2024년을 ‘기쁨과 열정으로 투신하는 해’로 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선배 수녀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100년의 역사의 길을 따라가며 초창기, 격동하는 시대를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살아온 선배 수녀님들의 행적을 ‘사랑과 감사로 기억’하며 감동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했던 선배님들의 삶 안에서 그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으며, 수도자란 어떤 존재인가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올 한해는 익히 알게 된 선배 수녀님들이 지냈던 사랑과 열정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길어 올리는 한 해를 살았으면 합니다. 올 한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기쁨과 열정으로 투신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기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열정으로 투신하기’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기쁨은 어디로 흘러가며 우리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며 우리는 무엇에 투신합니까?

우리의 기쁨은 인간적인 성취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찰나적인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로마 14. 17)

우리의 기쁨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고 좋아하시고, 어여뻐 여기심에서 기인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 느끼는 찰나의 기쁨, 활화산처럼 뿜어져 나오다 금방 식어버리는 환희와 흥분과 같은 일시적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 서원을 통하여 전 생애를 걸고 하느님과 깊이 결속되어 있기를 희망하여 이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매일의 미사와 성무일도와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하느님과의 친교를 돈독히 하고,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더욱 커지는 체험을 쌓아갑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하느님 사랑이 내 안에서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으로 생생하게 자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내적 기쁨은 커지고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기쁨은 수도 삶의 과정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희로애락의 인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상되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내 안에 사랑으로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그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기쁨은 내 안에 가두어 둘 수 없고 저절로 이웃에게 퍼져나갑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총은 내 안에서 흘러넘쳐 이웃에게 흘러가고 그들 안에서 다시 넘쳐흘러 또 다른 이웃에게 다닙니다. 그 기쁨은 평상심으로 드러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마태 5,12)는 구절은 바로 당신 때문에 박해받고 모욕당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순교 사화를 읽노라면 많은 순교자들이 처형에 앞서 ‘기쁜 얼굴로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구절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복음 말씀이 그들의 죽음 앞에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우리는 일상의 어떠한 장면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까?

너무도 인간적인 이유에 의해서만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의 성취를 이루었거나 남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에서 느끼는 기쁨은 불완전한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도 또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참 기쁨이라고 말해 줍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 사랑에서 기인한 내적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쁨은 강물처럼 흘러 주변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물줄기가 됩니다.

우리의 열정은 어디를 향합니까?

얼마 전 우리 회 역사에 관심을 가진 역사학도 자매님이 우리 수녀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수녀원에서 출간한 대부분의 역사서를 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복시성 위원회가 주관하는 연구논문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수도회 사료를 좀 더 수집하기 위해 2박 3일 영성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우리 대구 수녀원의 아름다운 환경과 기도 분위기를 경탄해 마지않으면서 “한국 전쟁 중에 피난 오신 수녀님들이 미군 군복 세탁을 하시며 일구신 수녀원이 바로 이곳입니까?”라고 했던 말이 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수녀원의 해체를 겪고 남한으로 피난 온 수녀님들의 고난(苦難)한 삶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느끼고 있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원산수녀원이라는 안정된 터전을 빼앗기고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올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주먹의 상태에서 굶은일, 험한 일 가리지 않고 남한에서 새롭게 수도 공동체를 시작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금의 대구수녀원의 기초를 놓으셨음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먼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느님께 뿌리를 둔 ‘성실과 충실’이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요? 그 시절 수녀님들은 오직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투신**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느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느님으로부터 불리움 받은 형제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피난 오신 수녀님들에게는 해체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개인의 성취에 머무를 때 거기에는 분열과 시기, 질투, 미움, 분노의 아비규환의 세상이 펼쳐질 뿐임을 우리는 현실의 세상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기쁨과 열정으로 투신하기**’라는 슬로건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그 일에서 성공을 맛보고 결과를 통해 성취감을 얻는 데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기인한 **내적 기쁨**을 봉인 해제시킴으로써,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고 넘쳐흘러, 이웃으로 -공동체 안에, 또 공동체 밖으로- 퍼져나가는 힘을 키우는 새로운 백 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적 기쁨에서 우리의 **열정**이 솟아오르고 우리의 현재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기적과도 같은 하느님 섭리를 펼치는 첫 페이지가 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서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찰>

-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열정은 어디를 향합니까?
나는 무엇에 투신합니까?

▶ 2024년 월피정 자료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나누어 주실 열분의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 원장 이 베타니아 수녀

참조: 마태오 복음 5장, 회헌 제4장 공동체, 5장 선교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